

Panel Discussion 주요 내용

1. Panel Session 개요

개요

- 주제
 - 글로벌 ESG 측정 표준화 추진 방향

□ Talking Block

Talking Block 1
ESG 측정 표준화 필요성과 기대효과
Talking Block 2
ESG 측정 표준화의 애로사항 및 개선방향
Talking Block 3
향후 논의 전개 및 추진 방향성

참석

참석자	소속/직책
 장용석 (Moderator)	•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장지인 (Panel)	• CDP* 한국위원회 위원장 중앙대 명예교수
 김의형 (Panel)	• 한국회계기준원장
 류영재 (Panel)	• 서스틴베스트 대표
 강동수 (Panel)	• SK SV위원회 부사장

[Talking Block 1. ESG 측정 표준화 필요성과 기대효과]

장용석 교수

- (Opening) Panel Session에 앞서 많은 분들이 기업과 사회와의 관계, 기업이 자기들의 활동을 비재무적인 정보로 보여줌으로써 어떻게 사회로부터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서 어떤 가치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 들어 보았음.
- 'Total impact measurement management', 'Impact Valuation', 'Impact based economy', 'Intangible based economy' 등 다양한 표현들이 나왔는데 결국은 최근 국제사회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ESG 관련 기업이 사회와 어떤 관계를 지금 새롭게 맺어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임.
- 그와 관련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측정 표준화, 그리고 화폐 가치화 등의 내용들로 얘기를 해보고자 함.
- 지금까지 ESG 측정에 대한 논의는 주로 비영리 단체를 통해 진행되어 왔으나 최근 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ESG 측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음. ESG의 Value 또는 Impact에 대한 측정을 표준화 하는데 이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의견을 이해관계자 관점에서 얘기 해보도록 하겠음.

류영재 대표

- 투자자 관점에서 ESG 표준화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함.
- 본인이 ESG에 대한 이야기를 한국에서 2004년도 부터 해오고 있었는데 요즘 언론 검색에 ESG 관련된 기사들이 하루에도 수 백개씩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참으로 감개무량함. 다만 이런 것들이 단순 일과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좀 더 심화 발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이 있음.
- 먼저 ESG에서 E는 Environment, S는 Social, G는 Governance factor를 의미함. 전통적으로 투자자들은 Financial Factor 위주로 투자 의사결정을 했는데, 점점 ESG Factor를 잘못 관리하는 기업들이 위기에 처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느끼게 됨에 따라 일종의 Contingent Liabilities, 우발채무 성격의 큰 Risk Factor로 등장하게 됨. 연기금과 같이 Long-term Investors에게는 ESG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 점점 Mainstream化 되어가고 있음.
- 투자자는 크게 두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음. ESG 관점 Approach를 통한 Impact Investment가 있고 Sovereign Wealth Funds, Endowment Fund 등 Mainstream Investment가 있음.
- 투자는 고려하고자 하는 Factor를 정확히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것에서 부터 시작됨. 그래야 표준화된 어떤 방법론 및 Framework에 기반하여 평가할 때, Factor 간 비교 가능해지고 어느 Factor에 더 비중을 둘 것인가 의사결정이 가능해짐. 결국 이를 통해 Actual Portfolio로 가면서 시장의 알파를 창출 하고는 것이 투자자들이 하는 일이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ESG측정은 '투자의 출발'이다 라고 볼 수 있음.

[Talking Block 1. ESG 측정 표준화 필요성과 기대효과]

강동수 부사장

- 기관투자자들은 ESG 관련 정보를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전문기관을 통한 컨설팅이 가능한 반면, 개인이 참고할 수 있는 정보는 당기순이익, 세전이익 등 재무정보 수준으로 투자 시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음. ESG와 관련된 정보들도 개인투자자들이 쉽게 알 수 있는 화폐화로 전달 해야지 정보비대칭성이 없어질 것임.
- 기업은 기본적으로 혁신을 해야하고 혁신의 주체는 구성원임. 구성원들이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알려면 화폐화가 가장 용이할 것임.
- 소비자 입장에서 단순히 좋은 일하는 착한 기업이 언론에 나오면 소비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ESG 관점에서 잘하는 기업 또는 못하는 기업을 선택하는데 화폐화가 용이할 것임.
- 기업들이 ESG 관련 공시를 하고 그것이 주가에 반영 되는 선순환 체계가 구축되면 기업들은 스스로 ESG에 투자를 할 것이기 때문에 ESG표준화와 화폐화 측정이 필요함.

장지인 교수

- UN이 ESG 요구를 공식적으로 한 시기가 2006년이었고 그 당시 ESG 시장규모가 \$6.5조 정도였다면 작년 6월 기준에는 \$80조임. Financial Times 기사에는 2025년 유럽 내 전통적인 펀드 수보다 ESG펀드 수가 더 많아질 것이라 예측함.
- ESG 투자 시장이 급격하게 커지면서 ESG 정보에 대한 역할이 중요해짐. 그런데 ESG 정보를 둘러싸고 있는 ESG 정보 생태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재무회계 생태계에 비해서 굉장히 복잡하고 불투명함. ESG 기준을 만들고 있는 조직이 너무 많은데 2015년도에 OECD 연구에 의하면 400개 정도 조직, 70개국에 걸쳐서 260개 이상 ESG Standards가 존재함.
- 기준의 수 뿐만 아니라 기준 간의 내용도 천차만별임. 기준을 들여다보면 GRI, SASB 등 ESG를 모두 커버하는 기준들도 있지만 환경, 기후변화 등 특정 이슈에 대한 기준서들만 제시한 그런 기준들도 많기 때문에 기준의 수 뿐만 아니라 내용과 성격도 큰 차이가 있음. 더불어 Indicators도 다르고 Scope도 다르고 Target Audience도 다름.
- 그리고 자발적 공시 정보의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Assurance 서비스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음. 결국 ESG 투자 시장의 문제는 비교가능한 ESG정보가 재무회계정보에 비해 현저히 낮고 신뢰성이 부족하여 ESG 투자자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하고있고 이게 공급적으로는 자본주의 시장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하나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임.
- 그래서 ESG 기준을 IFRS와 같은 High Quality Global Standard를 통해 수립하게 되면 정보의 비교가능성과 신뢰성을 제공할 수 있고 ESG 투자시장에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함. 최근 글로벌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 그리고 기관투자자들이 Global Standards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고, 이건 당연한 일임.

[Talking Block 1. ESG 측정 표준화 필요성과 기대효과]

김의형 원장

- ESG 정보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음. ESG 투자자 금융 등이 확대되고 있고 수요가 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니 양적인 수요 확대에 따라 풍부한 정보가 필요함. 더불어 질이 좋은 충실한 정보를 줬으면 좋겠는데 통일성 있는 정보, 일반성 있는 정보의 의미임.
- 이런 여러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표준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임. 표준화된 정보는 시장의 니즈도 있고 사용하는 사람한테서도 필요함. ESG 통합 보고에 대해 혼란스러운 점은 누구 위한 보고냐 인데 누가 Primary User냐에 따라서 표준화의 정도가 달라질 것이며 그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함. 표준화를 얘기할 때 사람들이 늘 생각하는 것이 IFRS와 같은 고도의 표준화된 단일 국제기준처럼 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인데 회계쪽 경험으로 보면 그 정도까지 도달하는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Poll 진행

Q1) 어떤 이해관계자(User)에게 ESG 화폐화 측정 및 표준화 가장 유용할지? Primary User는 누구인가?

1) 투자자 : 19표 2) 정부(규제/감독기관) : 3표 3) 기업(구성원) : 3표 4) 협력사 : 0표 5) 소비자 : 1표

[Talking Block 2. ESG 측정 표준화의 애로사항 및 개선방향]

장용석 교수

- ESG표준화를 단계별로 본다면 첫번째는 전 세계적으로 측정하는 Indicators를 어떻게 표준화 할 것인가 이고 두번째는 한단계 더 나아가서 화폐화를 통한 통분화에 대한 이슈가 있음.
- 측정의 표준화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어려운 부분 또는 개선방안은?

김의형 원장

- 중요한 주제임. ESG 보고가 많이 되고 있는데 무엇을 표준화 해야하는 지에 대해 깊이 생각 해봐야함.
- 표준화를 가지고 크게 두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음. 첫번째는 ESG 보고에 들어갈 내용이고 두번째는 보고 단위에 대한 표준화임. 회계를 하는 사람들에게 보고 단위는 중요하다.
- 보고 내용에 대한 표준화에 대해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겠지만 보고 하고자 하는 Agenda를 표준화해야 함. 예로 기후변화, 수질오염, 쓰레기 배출, 플라스틱 등이 있음. 여러 Agenda 중에서 몇 가지를 동시에 한다고 하면 우선시 되어야 할 것과 그 비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 및 합의가 있어야함.
- 보고 단위는 기업에 대한 연결 기준인지 개별기업 기준인지가 중요함. ESG 보고도 마찬가지로 지분 관계에 있는 투자를 한 회사로 볼 것인지 별도로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함. 더불어 Supply Chain을 통합해서 보고 할 것인지 개별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야 함. 우리한테 납품하는 외주업체까지 포함해서 할 것인지 별도로 할 것인지가 중요한 이슈임. 이러한 문제를 Supply Chain에서 합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도 표준화의 중요한 화두임.
- 표준화가 가능할 것인가 질문에 대한 대답은 Yes/No 둘 다임. 두가지 답을 드리는 이유는 ESG 보고가 활성화되고 있는 Base는 투자자 그룹을 통한 녹색금융, ESG투자에 대한 압박이고 이러한 압박들이 시장을 통해서 온다고 하면 표준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만약 각국의 입법을 통해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국가별 표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표준화의 장애 요인이 될 것이고 통합이 잘 안될 것이란 걱정이 있음.

[Talking Block 2. ESG 측정 표준화의 애로사항 및 개선방향]

장지인 교수

- 표준화를 얘기하기 위해 회계 쪽에서 경험한 좋은 사례가 있음. IFRS는 Global Standard를 만들기 위해 IASC라는 회계사 전문가들 단체가 만든 기구임. 전 세계 회계 기준을 통합하기 위해 1973년도에 설립 되었고 통합 노력을 지속 해오다가 2001년도에 지금의 IASB조직으로 바뀌면서 IFRS라는 Global Standard로 통합이 됨.
- IFRS를 채택하는 국가가 140개인데 Global Standard로 안정화 되기 까지 약 40년 걸림. 회계에서 재무제표 정보 외의 정보를 비재무정보라고 하고 단순히 ESG 정보라고 얘기하는데 ESG 정보를 생산하는 기술을 우리가 통일하겠다는 것인데 굉장히 크고 어렵고 방대한 과정임.
- 지난 수년간 표준화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이 아님. 그동안 ESG 정보 기준이 난립되어 있어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Corporate Reporting Dialogue(CRD)가 2014년도에 구성 되었고 IASB 포함 8개 조직이 참여 중임. 지난 2년 동안 CRD에서는 Better Alignment Project를 진행했으며 기준 간의 차이가 조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TCFD의 기후변화 공시 기준을 가지고 해보니까 기준 간의 차이를 좁힐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생김.
- 논문이나 신문기사에서도 표준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액션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2019년임. 이때 VBA도 기업체 Initiative로 출범했고 IFRS를 사실상 창출하게 된 IFAC(국제회계사연합회)에서 ESG 기준의 Global Standard를 지지하겠다고, 하면서 IFRS재단에서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속에 IASB에 해당되는 새로운 기구를 설립하면 좋겠다고 Recommend하여 올해 6월 IFRS재단이 표준 재정 역할을 해보겠다고 발표함. 9월에는 WEF IBC와 Big4 회계법인이 협력하여 Stakeholder Capitalism Metrics 안을 만들었는데 아직까지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결국 Global Standard의 한 예를 제시한 것임. 그리고 400개가 그런 재정 기구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5개 기구가 Global 표준화를 위한 공동노력을 할 것이며 IFRS재단에서 표준 재정 역할을 하게 되면 지지하겠다고 공동 선언문을 발표함. IFRS재단이 지난 9월 Consultation Paper를 Release하여 연말까지 의견수렴 중임. 이런 과거의 노력들이 Pandemic을 전후로 활발하게 제시되고 있고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여겨짐. 특히 VBA와 같은 기업 연합이라든지 IFRS 재단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을 볼 때 성공적인 가능성을 엿볼 수 있음.
- 근데 문제는 통합을 하는데 있어 앞에 놓여져 있는 장애물들이 굉장히 많음. 재무정보하고는 성격이 다르고 재무회계 정보를 통합할 때는 각국마다 다른 회계기준을 가지고 있었지만 ESG 정보는 국가 단위도 아니고 개별조직체의 이니셔티브가 400개나 존재함. 통합을 하려면 통합의 주체가 있어야하는데 이 주체는 결국 가장 전문적이고 경험이 있는 IFRS 재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임. 다만 GRI 같은 경우 적용하는 기업 수만 해도 6천개가 넘고 S&P 500대 기업의 40% 정도가 GRI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조직들의 이해충돌 문제가 걸려있음.
- 뿐만 아니라 실제로 통합을 한다고 하면 개념부터 시작해서 표준화해야 할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 예상됨. 표준화 문제가 우리 앞에 닥친 큰 과제라 생각이 들고 정부와 관계 기관들이 잘 협력해서 좋은 결실을 맺길 기대함.

[Talking Block 2. ESG 측정 표준화의 애로사항 및 개선방향]

류영재 대표

- 표준화 관련 환경에 대해서는 비교적 용이함. 영국의 Trucost라는 회사는 2008년도에 \$2조2천억 정도의 External Cost가 발생했다는 것을 연구해서 발표하였음. 그 해에 기업들이 \$6조 순이익을 냈는데 1/3 정도 되는 비용을 외부화하는 Input-Output 모델을 개발했고 700개의 환경 물질을 화폐화해서 발표한 시도임. Trucost는 S&P에 인수되어 운용되고 있음.
- 문제는 S하고 G임. Governance는 Stakeholder Capitalism 관점에서 Governance가 있고 Shareholder 관점에서의 Governance가 있으며, 나라마다 거버넌스의 상이성이 있음. 우리나라는 재벌 시스템이라는 독특한 기업 지배구조를 가진 나라이고, 영미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구조기 때문에 G를 어떻게 Define하고 Scope을 정할것이냐는 표준화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라 여겨짐. Mainstream 투자자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거버넌스인데 좋은 기업이 Finance Return이 좋다는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도 많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Governance에 상당한 가중치를 많이 부여하지만 측정이 쉽지 않다고 봄. Social 부분도 많은 이슈가 있음. ESG나 CSR이 유럽 중심으로 나오다 보니 유럽의 Norm과 Culture를 많이 반영하고 있음. 예를 들어 유럽은 CSR, ESG에서 Animal Welfare 및 Human Rights의 수준이 높는데 과연 그 정도 수준을 우리가 부여할 수 있는지, 우리가 그 정도 수준의 문화를 갖고 있는지, 사회적 Consensus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임.

강동수 부사장

- 대부분 표준화에 동의하지만 어려운 점은 있다 말씀하시는데 기업입장에서 화폐화 측정은 나중에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Risk임. 그럼에도 하려는 이유는 결국 ESG 기반의 경영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살아남지 못한다는 절실함이 있음. IFRS가 40년 걸렸다 하셨는데 IT 시대에 기술 발달에 따라 소통도 발달했기 때문에 기간이 단축될 것이라 봄. 류대표님 말씀에도 상당 부분 동의함. 그렇지만 오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논의를 시작해가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나가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음.

[Talking Block 2. ESG 측정 표준화의 애로사항 및 개선방향]

장용석 교수

- 화폐화 가치로 바꾸는 것에 대한 짧은 의견 부탁 드림.

강동수 부사장

- 투자자 입장에서 석탄 발전을 통해 천억을 버는 회사, 태양광 발전을 통해 백억을 버는 회사가 있다면 어느 회사에 투자할 것인가? 화폐화를 통해서 투자를 제대로 할 수 있음.

류영재 대표

- Mainstream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미 주가, Market Share 등 화폐 단위가 있고 ESG 측정을 통해 Rating 하는 Agent들도 많이 존재함.
- 이를 기관투자자들에게 제공을 해주면 그들은 House별 여러 방법론을 동원해서 Valuation된 ESG 점수를 Revaluation 하여 보정하는 것임. Mainstream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미 화폐화를 가지고 있고 그걸 내재화 하고 있음.

김의형 원장

- 재무보고가 화폐화가 되는 것 때문에 비재무보고 화폐화도 많이 언급되는데 부정적임. 기본적으로 화폐화는 어렵고 어쩌면 안될 수도 있으며 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부분적으로만 될 수 있음. 재무보고는 측정하는 Category가 재무적인 손익 하나임. ESG는 전혀 다른 문제임. 사회, 환경, 고용 등 여러 Category가 있는데 그중에 어떤 것은 측정되고 어떤 것은 측정 자체가 의미 없는 것도 있을 것임.
- ESG보고를 하는 기업으로 하여금 여러가지 Factor들을 금전적으로 환산하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 오히려 기업의 보고는 지금처럼 Metrics로 보고하고 그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들이 그것을 자기 방법론으로 화폐화 환산 하거나 평가기관이 필요한 지표에 한해 화폐화하는 어프로치가 좋을 것 같음.

장지인 교수

- 화폐화는 ESG 정보를 산출하는 기준이 통일 되더라도 기존의 재무정보와 통합 시키는 것이 어려울 것임. 화폐화가 된다면 어느 수단 보다도 ESG 정보를 Integration하는 것이 쉬워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것 같은데 비재무정보란 화폐화하지 못한 정보로 현재 회계기준에서 화폐화를 하지 못한 정보임.
- 인식 기준에서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할 때 화폐로 측정 가능할 것인데 VBA의 시도를 보면서 놀랍기도 하고 혁신적인 시도라고 생각되는 화폐단위 측정을 하고 있었음. Contingent Valuation 등을 혁신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 IT 등 Tech도 발전되고 했기 때문에 여러 Data를 조합해서 VBA 같은 Initiative에서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금액 측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새로운 변화를 이뤄내지 않을까 생각함.

[Talking Block 3. 향후 논의 전개 및 추진 방향성]

김의형 원장

- Consultation Paper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성공할 가능성도 있다고 봄. 성공하게 되면 굉장한 변화가 있을 것임. 표준화된 기준을 통한 ESG 보고 확산이 커질 것이고 ESG 정보가 표준화되고 다양해지면 투자하려는 펀드가 많아질 것임. 중요한 Global Agenda들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다 분석하게 되는 것임.
- 여태 기업이 사회와 소통을 하지 않았고 서로 사용하는 Language가 달랐는데 이제는 사회로부터 메시지를 전달 받고 반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음.

장지인 교수

- IFRS Global Standard 과정에서 한국이 전혀 목소리를 내지 못했는데 지금은 달라졌음. 광수근 교수가 재단 이사로 있고 멤버로 있던 서정우 교수도 여기 와있음. 한국의 역량이 많이 달라졌음. SK가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앞으로 Global Standard 과정에서 한국이 제대로 기여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강동수 부사장

- VBA는 기업들의 Alliance임. 지금까지 민간, 정부 주도 Initiatives 중심에서 사용할 기업들이 직접 참여하였다는 점이 의미가 있고, 자의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제대로 만들고 같이 쓸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임. 기업들이 Negative 환경 영향도 줄이겠지만 혁신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류영재 대표

- 먼저 논의를 누가 주도할 것 인가, 다음으로 논의기구 주도 하에 업의 성격과 Factor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Disclosure Guide를 표준화 할 필요가 있음.
- 논의 주체에서 Universal Owner들의 역할이 중요.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펀드 타입 별로 보면 70% 이상이 Endowment Fund임. 예를 들어 자동차 판매 기업이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했다면 연금펀드들은 자동차 주식부터 생명보험주식까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엑스트라 코스트 발생으로 인해 자동차 회사는 돈을 벌지 모르지만 Asset Owner의 이익성은 훼손될 수 있음. Universal Owner들이 이런 면에서 목소리를 내야함.